

할랄시장 인지도 향상 기대

우리과 말레이시아 간의 유제품 수출검역협약이 마무리됨에 따라 할랄 인증 획득 및 말레이시아 수의부에 수출업체로 등록하면 우리 유제품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업계가 수출시장 다변화의 일환으로 할랄시장 진출을 타진하면서, 지난해 정부에 유제품의 말레이시아 수출을 위한 검역협의를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말레이시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최근 우리 유제품에 대한 수출검역증 서식협의를 최종 완료했다.

박경일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사무관은 “양국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유제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를 통해 할랄인증을 받고, 말레이시아 수의부(DVS)에 수출업체로 등록하면 현지에 유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며 “단, 구제역 미발생농장에서 출하한 원유로 제품을 생산했다는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발급 및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업계는 우리 유제품의 말레이시아 수출 길이 열린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중국과 중동 및 동남아 일부 지역에 국한된 유제품의 수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말레이시아에 수출되는 유제품은 지리적인 요인을 감안해, 신선 우유보다는 주로 멸균유 제품이 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 3월 서울우유가 멸균유 9종, 빙그레가 바나나맛우유(멸균 테트라팩) 3종에 대해 할랄인증을 획득하고 말레이시아 수의부로부터 수출업체 등록을 완료했다. 빙그레는 이르면 이달 말~내달 초에 바나나맛우유의 말레이시아 수출을 진행하며, 서울우유는 올 하반기 내에 멸균유 수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도 한국유가공협회 전무는 “말레이시아 진출을 통해 할랄지역에서 우리 유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올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국제식품박람회(SIAL InterFood Jakarta)에 참가해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공략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어민신문